

# 김영록 지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도모델 만들자”

### 대한민국 AI 수도 방향 설정·교부세율 인상 적극 건의 등 강조

### “청사에 쌀·쇠고기 시장개방 제외 등 감사 플래카드 의미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도모델 제시와,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 방향 설정을 서두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보다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된 것은 전남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하다는 그동안 전남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격려했다.

특히 “전남 전체를 지정해준 의미는, 분산에너지 제도와 시책을 잘 활용해 모델 케이스로서 시범사업을 잘 추진해 선도적

인 역할을 해달라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도민의 날 행사 때 대한민국 AI 수도 전남을 선포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AI 수도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전남은 오픈AI-SK, 삼성 SDS 등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그걸 넘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AI 수도 전남의 방향을 설정할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국회나 중앙 세미나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인상 건의 노력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는 수도권이 유리하고 지방, 특히 도 단위에서는 교부세율 인상이 유리한 제도”라며 “교부세는 위기지역에 가

중치를 뒤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주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 재원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쉽게 설명할 자료와 논리를 만들어 중앙에 적극 건의하자”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서구, 치매자원봉사단 성과공유회 개최

### 발전 방향 논의... 봉사-공동체 의미 나누는 특강까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치매전문 자원봉사단 ‘서구기억해온단’의 성과공유회를 열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구기억해온단은 지난해 5월 치매안심마을(상무2·풍암·금호1동) 주민 60명으로 구성된 치매 전문 자원봉사단으로 치매 예방 활동, 인식 개선, 고위험군 발굴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단원들은 5인 1조로 나뉘어 경로당, 치매안심공원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치매예방 제도와 교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인지정서지원전문가 1급 과정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갖췄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영상 시청, 발표 등을 통한 활동성과 공유와 함께 김이강 서구청장의 특강도 진행됐다.

김 청장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단원들과 함께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의 시간에서는 ▲활동 지역 및 역할 확대 ▲치매예방 콘텐츠 다양화 ▲단원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단원들은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억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싶다”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기억해온단의 헌신이 치매 걱정 없는 따뜻한 마을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 주민들과 경기도 안성시 주민들이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생활인구 교류사업을 통해 양 지역의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 현장 방문을 비롯해 로컬자원을 체험하는 등 왕래에 나선다.

특히 안성시 주민들은 오는 2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단 하나뿐인 사지동 시간우체국 현장과 근대역사문화 마을 양림동 일대 등을 방문, 지역간 상생을 위한 인적 교류에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지속가능지방정부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생활인구 교류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 남구 “경기 안성 시민들, 시간우체국 찾는다”

### 지속가능지방정부協 생활인구 교류사업 추진

지역간 상호 교류로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머무는 생활인구로 전환을 유도, 지역민과 방문객이 지속 가능한 지역의 새 발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남구 주민 20여명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안성시를 방문한다.

이들은 안성시의 고향사랑 대표 기금사

업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아침을 간편식으로 지원하는 마을도시락 사업 현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묘가 있는 미리내성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국내 농축산업을 체험하는 대표 목장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안성팍랜드에서 가족들과 교감을 나누는 체험활동에도 참여한다.

경기도 안성 시민 20여명도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머물면서 남구

의 살아 있는 공동체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는 21일에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사지동 시간우체국 조성 현장과 양림거점예술센터, 사직 빛의 숲 등지를 탐방하며, 22일에는 빛고을공예창작촌과 고씨움놀이 테마공원에서 공예 산업 및 국가 무형유산도 체험한다.

남구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자와 지역이 단순한 후원 관계를 넘어 지역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기부로 이어진 마음이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 닿을 수 있도록 생활인구 교류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체류, 의료, 법률,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광주생활가이드’ 책자를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지원팀, 5개 자치구 가족센터, 외국인전화방역원 등 58개소에 배포를 완료했다. 현장 배포와 함께 시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과 광주가이드 누리집(gwangjuguide.or.kr)을

## 광주시, ‘외국인주민 광주생활가이드’ 제작

### 인도네시아어·네팔어 추가 10개 언어로... 전자책 서비스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 책자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 총 10개 언어로 제작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2021년 4개 언어로 시작한 생활가이드

를 확대해온 광주시는 올해 근로자 비중이 높은 인도네시아어와 네팔어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QR코드도 수록해 온라인 접근성도 강화했다.

책자에는 등록 및 체류 절차, 건강보험과 의료기관 이용, 육아와 교육, 생활법률, 한국어교육, 긴급전화, 외국인 지원기관

안내 등의 실질적인 생활정보가 수록됐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근로·노무 정보, 쓰레기 배출 방법, 마약 경고 문구, 재난문자 애플리케이션 안내, 유학생 필요 정보 등도 포함됐다.

주상현 외국어정책과장은 “외국인주민이 낮은 환경에서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 보완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포용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광주가 요구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경우 이는 “국가NPU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에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에 필요한 기초 사업비가 반영되면 후속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며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기부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해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시설인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도전했지만 기업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실패했다. 이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광주가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를 준비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AI선

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광주시는 인공지능 전략을 국가NPU컴퓨팅센터 설립으로 수정하고 구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NPU컴퓨팅센터는 GPU센터에 비해 전력 수요가 낮고 현재 국내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NPU지원 확보가 용이하다.

특히 NPU는 GPU보다 10~100배 높은

연산 효율성을 갖고 있어 AI ‘추론’에 특화된 반도체 칩으로 인공지능 기술 실증의 필수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AI반도체를 설계하는 에이직랜드·에이퓨처·퓨리오사·리벨리온 등 펠리시기업 등이 실증 및 검증 사업을 통해 국산 NPU를 출시했으며 현재 고도화·상용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광훈 기자

## 광주 동구랑페이, 50억 원 완판 눈앞

### 이달 10일 기준 48억 여원 판매, 페이백 이벤트 호응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9월 22일 발행에 나선 지역화폐 ‘광주 동구랑페이’가 이달 10일 기준 판매액이 47억 8천600만 원을 기록하며 발행 규모 50억 원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랑페이’는 관내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 규모는 총 50억 원이며, 소비자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관내 광주는 행사 중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18%로, 50만 원권 선불카드를 41만 원에 살 수 있다.

발행 한 달만 지난날 23일 기준 28억 원 이상이 판매되면서 56%를 돌파했으며, 지난 10일에는 47억 원을 돌파하며 판매고를 경신,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

고 있다.

이 같은 판매에는 최근 제22회 광주 추석의 중앙축제와 제5회 동맹커피산책에서 진행한 이벤트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벤트는 행사 당일 10만 원 이상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로, 동구랑페이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가맹점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동구랑페이의 편리성과 경제적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의회**

**“좌석은 절반, 불편은 두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이 답이다**

